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윤학 변호사·힌몰결아트센터 대표

며칠 전 네덜란드에서 온 그를 처음 만났다. 한국에 왜 왔느냐고 물었더니 반도체에 회로를 넣는 첨단장비 업체인 유럽 본사에서 삼성에 기술 지원을 하기 위해 왔다고 했다. 그 첨단장비가 없으면 삼성도 TSMC도 반도체를 못 만든다고 했다. 자기 회사는 세계 시장 점유율 백 퍼센트라서 '경쟁자가 없다'는 말을 몇 번이나 강조했다.

"경쟁자가 없다!" 그의 말에서는 자부심이 넘쳐났다. 그러나 기술은 시나브로 발전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그 회사에도 경쟁자가 생길 것이다. 당분간 경쟁자 없는 회사에 다녀도 저렇듯 의기양양한데 그가 언제나 경쟁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나는 대학 졸업 후 어두컴컴한 고향 집 구석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몇 년 전부터 사법시험 수석이니 최연소 합격이니 3관왕이니 하며 신문에 오르내리는 친구들을 보면 내 자신이 더욱 초라해졌다. 내가 뒤늦게 합격한들 친구들 뒷자리를 쫓아다닐 것 아닌가. 이미 경쟁에서 뒤처진 인생이었다. 법학 책을 펴면 머리만 아파왔다.

어느 날 집안에 있던 낡은 책 한 권을 집어 들었다. "가치에는 경쟁 가치와 비경쟁 가치가 있다." 그 한 문장이 내 마음을 끌어당겼다. 돈이나 권력처럼 경쟁을

내 인생 최고의 보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쟁 가치는 이 세상에 한정되어 있는데, 아름다움이나 선함은 공기처럼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가질 수 있는 비경쟁 가치라는 것이다. 내가 1등을 차지하면 남이 1등을 못하는 것은 분명했다. 순간 나는 내가 갖게 되면 남이 갖지 못하는 경쟁 가치를 위해 발버둥 쳐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세상을 위해 유익한 일을 해도 남들 역시 알마든지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미소를 보내도 누구나 미소 지을 수 있듯이... 그리고 보니 나는 뒤처진 인생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에게 줄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다.

어릴 적 오르던 뒷산 바위를 찾았다. 만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물결에 반짝이는 햇살이 안겨왔다. 바람과 햇살은 태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수천 년 전에도 너처럼 이 바다를 바라본 소년이 있었다고. 수천 년 후에도 그런 소년이 있으리라! 내 몸에 황금빛 날개가 달린 것 같았다. 나는 하늘을 향해 힘껏 날아올랐다.

그 어둠된 방에도 불이 켜졌다. 나는 드넓은 바다를 보며 자란 사람이 아닌가. 내 공부나 나에게는, 남에게는 도움이 되도록 하자! 딱딱한 법서를 읽어도 가슴은 부드럽기만 했다. 내 공부나 나를 드높이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정말 가치 있게 쓰일 거라 생각하니 공부도 재미있었다. 그해 나는 고시에 합격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그러나 변호사도 누군가를 이겨야만 했다. 변호하는 일에 지쳐 돌아온 날, 밤을 새워 음악을 들었다. 베토벤 음악에는 신의 음성이 들어 있었다. 내 영혼을 울리는 고결한 음성이, 어느 새벽 베토벤이 말을 걸어 왔다. "나는 인류에게 음악으로 큰 선물을 주었다. 너는 무슨 선물을 주겠느냐?" 법정에서 이기는 데 힘을 쏟고 있는

나의 삶과 인류에게 끊임없이 사랑과 평화를 주는 베토벤의 삶이 겹쳤다.

그렇다! 누구나 사랑과 평화의 선물은 줄 수 있지 않는다. 고운 말을 쓰는 것, 정직하게 일하는 것, 정성 들여 만든 음식으로 가족에게 기쁨을 주는 것... 이 세상에는 경쟁하지 않고도 누구나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치들이 너무나 많았다. 나는 그 길을 가기로 했다. 상대를 공격하는 변호사 일을 그만두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았다. 종이책이 사라져 간다는 시대에 나는 글을 쓰고 '월간독자 Reader'와 뮤지컬을 만들기 시작했다. 만바다의 바람과 햇살은 이 시대 사람들의 메마른 가슴에 더 필요할 것이기에.

그런데 신기한 것은 손해 볼 것이 뻔한 일에 뛰어들었는데도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이다. 비경쟁 가치를 향해 가면 경쟁 가치까지 덩어리 따라오는 경험을 수없이 하다 보니 이제 믿음도 생겼다. 이 믿음이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보물이다.

다음 주 그 네덜란드 친구가 내 사무실에 오기로 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찾은 보물을 말해 주고 싶다. '경쟁자가 없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아예 '경쟁하지 않는' 삶에 그가 더 자부심을 갖게 된다면, 그에게도 황금빛 날개가 달리지 않을까. 그와 나란히 저 푸른 하늘을 날고 싶다.

※윤학 힌몰결아트센터 대표가 춘추칼럼 세 필진으로 참여합니다. 해남 출신인 윤 대표는 변호사이자 월간독자 Reader 발행인, 월간 가톨릭다이제스트 대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를 맡고 있으며 뮤지컬 제작·저술·잡지 발행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종교칼럼



중헌 광주 중심사 주지

'민식이법 놀이'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수의 매체는 '민식이법 놀이'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민식이법 놀이 때문에 민식이법이 약화되고 있다.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민식이법으로 기소된 사람이 공주시간(空手時間)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어 이런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반면 이런 논조의 기사들은 민식이법 흡집 내기라는 주장도 있다. 6월 3일자 경향신문은 교통사고 전문인 정경일 변호사의 견해를 인용하며, '민식이법 놀이'가 실제로 아이들 사이에서 만연한지 확인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설명 일부 이루어진다 해도 도로 위의 약자인 보행자 보호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주장을 싣고 있다.

민식이법 약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려면 실제로 민식이법 놀이가 초등학교 사이에서 얼마나 만연되었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을 세우려면 해당 정책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것은 자국히 당연하다. 몇몇 운전자들의 경험에 국가 정책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대체 우리 아이들이 왜 그럴까?

그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도대체 왜? 아이들은 그런 위험천만한 장난을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지, 아이들에 대한 질타가 아니다. '어디 한번 당해 보라'며 골탕 먹이는 듯한 행동을 왜 하는 것일까?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은 나는 아이들의 심정을 헤아리기 힘들다. 오히려 운전하는 입장이라 초등학교생보다 운전자의 입장이 더 쉽게 헤아려진다.

그러나 관련 동영상을 볼 때마다 아이들의 분노와 증오가 느껴진다면 지나친 억측일까? 자신들을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공포로 몰아넣던 길거리 자동차들을 향한 무의식적인 증오가 지극히 '아이스러운' 방식으로 표출된 것 같은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물론 아이들이 달리는 자동차들에 대해 증오심을 품고 언젠가는 반드시 저들에게 복수하리라 다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민식이법으로 인해 스쿨존 내에서 자동차들의 움직임이 느려지자 평소의 두려움이 일종의 복수심으로 발산된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일 뿐이다.

비록 증오에 기반한 복수심으로 약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더라도,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 그 어디에도 주변과 사회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다. 어른들이 우려하고 질타하는 대목이 바로 이 지점이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의미에서 '아이스러운' 발상이다. 어른이라면 운전자가 '민식이법'을 반드시 지킬 거라는 믿음을 하에 달려오는 차에 뛰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나아가 자기 감정만 생각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아이들을 만든 것은 바로 우리 시대의 어른들이다.

결국 보행자 우선의 원칙을 우선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만 남는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의 일인당 차량 보유 대수는 대략 0.5대. 경제활동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약간 넘는 2800만 명 정도임을 감안할 때 집집마다 차가 한 대 이상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보행자 우선 원칙보다 운전자의 이해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 국민이 운전하는 시대가 된다 하더라도, 보행자가 달리는 자동차보다 우선이다. 아무리 초등학교생들이 도를 넘는 행동을 하더라도 초등학교생들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주장의 대척점에 공정한 경쟁이 우선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개개인의 공정한 경쟁도 건강한 사회가 존재해야 가능하다. 사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문명화된 오늘날의 개인도 존재할 수 없다. 나아가 사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경쟁은 출발부터 불공정하다. 사회적 약자 보호보다 규칙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우선이라면 세상은 가진 자와 힘있는 자 우선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인간은 위력적인 자연의 힘에 맞서 싸우기 위해 사회와 문명을 창조했다. 사회 화야말로 인간이 자기 자원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효율적 전략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공정한 경쟁보다 사회적 약자의 보호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

어찌 되었건 나는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철없는 아이들과 그 부모들을 질타하기 전에, 스쿨존에서 더욱더 조심해서 운전할 것이다. 그게 어른스러운 행동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지역 대학 위기 극복, 교육 허브 구축으로

학습 요구와 지역사회의 변화하는 요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습의 허브로서 지역사회 교육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인 '학습의 상시화'는 학습이 시공간을 초월해 이루어지면서 풍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상의 네 가지 미래 학교 교육의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지역 대학은 지역을 기반으로 학습 허브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지역 대학은 혁신을 통해 지역에 열린 개방형의 평생교육 체제를 갖추어 지역사회와 적극적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기업과 주민의 요구를 교육·연구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의 사례로서 '제주도의 언어'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도의 언어는 고어를 많이 갖고 있으므로 연구적 가치 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그런 언어를 학교 교육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후대에 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학교 내에서 제주어의 사용을 억제하고 표준어를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즉 제주도만의 고유한 특성을 무시한 중앙집권적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다. 최근에는 제주어 보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그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을 강화한다고 야단법석이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호남 지역은 다른 지역이 갖지 못한 많은 문화유산과 민주화의 성지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교육에 있어서 중앙과 분리된 호남 지역만의

교육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대학 교육은 중앙 정부가 맡고, 초중등 교육은 지방으로 이관되어 대학 교육과 초중등 교육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초중등 교육에 필요한 교육 자료를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반쪽 교육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OECD가 제시한 것처럼 대학이 학습 허브로서 지역 교육에 필요한 학습 자료를 생산하고, 이를 초중등 교육에 전파하면서 지역의 자부심을 갖도록 유도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아울러 지역 대학은 지역 사회의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연구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 지역 연구를 담당하는 기구로 광주전남연구원이 있는데, 연구원과 지역 대학 간 적극적 연계를 통하여 연구 성과를 초중등 교육에 전파하는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초중등 교육에 필요한 교육시설을 대학에 설치하여 이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서 시설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정보통신(IT) 분야 발전사를 전사·교육하는 시설로서 호남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IT SQUARE'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 발전을 숙고하는 연계 체계 확고히 만들어진다면 지역 대학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지방정부, 지방 교육청 및 지역 대학이 협업체를 구성하여 지역 교육의 허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社說

도쿄올림픽 태극전사들이 이기고 돌아오라

제32회 도쿄올림픽이 오늘 오후 8시 일본 도쿄 신주쿠의 국립경기장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음달 8일까지 17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125년 근대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1년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열리는 이번 올림픽은 전체 경기 일정의 4%만 관중을 받는 사실상의 '무관중 대회'로 치러진다.

이번 대회에서는 33개 정식 종목의 금메달 339개를 놓고 205개 나라 1만 5000명의 선수가 기량을 겨룬다. 대한민국은 29개 종목에 선수단 354명(선수 232명·임원 122명)을 파견했다. 광주에서는 21명, 전남에서는 32명이 국위 선양을 위해 나선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금메달 일곱 개 이상을 획득해 5회 연속 종합 10위 이내 입상을 노리고 있다.

개막 바로 다음 날인 24일은 대한민국 선수단의 금메달 낭보가 이어지는 '골든데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궁 혼성단 체전, 남자 태권도, 펜싱 남자 사브르 개

인전, 사격 남자 10m 공기권총 경기가 열린다. 광주·전남 출신인 전용태(광주시, 근대5종), 안산(광주여대, 양궁), 광주체고를 졸업한 안세영(삼성생명, 배드민턴) 등도 금메달 레이스에 가세할 유망주들이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치러지는 이번 올림픽에서는 경기만큼이나 '방역'이 큰 화두다. 일본 정부와 IOC는 물론 일본 내 거주민의 경기 입장도 막아 'TV 올림픽' '안방 올림픽'이 현실이 됐다. 하지만 개막 이전부터 도쿄에 긴급 사태가 선포되고 선수촌에서 확진자 발생이 잇따르면서 '코로나 올림픽'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주최 측이나 선수단 모두 방역과 안전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올림픽은 스포츠를 통해 전 세계인의 우정과 화합을 도모하는 평화 축제이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 선수단이 그동안 닦아 온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해 선전하고, 건강하게 귀국하기를 기대한다.

자금난 시달리는 소상공인 적극 지원을

코로나19가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광주·전남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예금 취급기관 대출 잔액은 55조 원을 훌쩍 넘었다. 특히 올 들어 5개월 동안에만 2조8382억 원이 늘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빚을 내 어렵게 버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늘어나는 빚 규모도 문제지만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높다는 것은 더욱 문제다. 광주는 중소기업 신규 대출의 절반가량이 비은행권 대출이지만 전남은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70%에 가깝다. 코로나19 이후 지역 중소기업의 대출 증가율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지난해 말 기준 지역 중소기업의 대출 증가율은 18.5%로 코로나19 이전 과거

평균(2017~2019년) 증가율 9.6%의 두 배에 달했다. 대출 증가율은 광주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대다수인 서비스업 대출 증가율도 광주·전남이 15.5%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골목상권의 침체로 이 지역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빚에 내몰리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 준다.

광주·전남은 근로자의 93%가 중소기업에 종사할 정도로 경제 기반이 취약하다. 그중에서도 절반 가까이 경기민감한 도소매업이나 숙박업이다. 코로나19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빈사 상태에 놓여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정책 당국의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다. 당국은 중소기업들의 신산업 진출과 사업 재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코로나19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전쟁의 승패는 대부분 군사력의 우위로 판가름 난다. 하지만 역사 속 수많은 전쟁 중에는 적의 10분의 1이나 20분의 1도 되지 않는 승산 없는 전력으로 상대를 물리친 기적 같은 승리들이 있다.

백마고지 전투나 낙동강 전투와 같이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6·25전쟁 중에도 불가사의한 승리로 꼽히는 전투가 꽤 있었으니 '베티고지 전투'도 그중 하나다. '36(한국군) 대 800(중공군)'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베티고지 전투'는 중서부전선의 대표적인 고지

소대장인 김만술 소위 등 36명의 국군이 중공군 2개 대대의 공격을 물리쳤다. 물론 18시간의 전투로 국군도 24명이 전사했지만, 중공군은 350여 명의 사망자를 낸 채 패퇴했다.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의 '13 대 133' 명량대첩은 500년이 지난 현재에도 매년 신화로 부활한다. 1597년 9월16일 이순신은 12척의 전선에 급히 정비한 어선 1척을 더해, 명량(울돌목)에서 왜선 133척과 맞섰다. 조선 수군이 왜선 31척을 격

기적 같은 승리

120~150m밖에 되지 않는 베티고지는 경기도 영천군 태풍전망대 북쪽 500m 앞 비무장 지대에 있다. 임진강 북쪽에 위치한 이 고지는 작전상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다. 그 뿐만 아니라 휴전이 성립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주저항선에서 남쪽으로 2km 이상 비무장지대로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국군은 그만큼 남쪽으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었다.

베티고지 전투는 휴전협정을 10여 일 넘겨 둔 1953년 7월15일부터 16일까지 벌어졌다. 결국 1사단 제11연대 6중대 2

침시키자 일본 수군은 모두 도주하고 말았다. 명량대첩 직전 이순신이 선조에게 올린 장계

에 나오는 '신에게는 아직 배 12척이 있다' (今臣戰艦尙有十二)라는 문구가 새삼 다시 회자되고 있다. 대한체육회가 이 문구를 도쿄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에 내걸었다가 일본 항의를 받은 IOC의 요청에 따라 철거했기 때문이다.

오늘은 도쿄 올림픽 개막일이다. 태극전사들은 일본의 유치한 신경전에 말리지 말고 온 국민의 응원을 무기 삼아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맘껏 발휘하길 바란다. /채희종 사회부장chae@

기고



송창수 호남대 교수·대학혁신본부장

지역 대학의 위기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회자되지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화되면서 출생률이 감소하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인데, 중앙집권과 때문에 지방의 인구는 더욱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대학은 입학생이 감소하면서 '뱃꽃이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대학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미래 학교 교육의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 번째로 '정규 학교 교육의 연장'을 제시하는데, 새로운 평생교육은 변화하는 기술의 발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기존에 배움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 및 강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로서 '학교의 외주화'로 홈스쿨링, 온라인 학습 및 지역사회 기반의 교육을 통하여 학교 교육을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 번째는 '학습 허브로서의 학교'이다. 이는 교수는 학습자의

광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汝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전 남 본 부 220-0642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